

학문 융합 시대의 후설 현상학* **

박 승 억***

- I. 학문 융합 시대와 인문학에 대한 두 가지 요구
- II. 위기의 변주와 낡은 문제의 새로움
- III. 학문 융합의 시대와 현상학의 새로운 역할

• 국문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 융합(convergence)은 새로운 학문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곤 한다.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융합이 화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학문 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방증이다. 학문 융합은 전통 학문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탐구 영역의 발견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이 경우에 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가능한지 등을 해명하는 일은 따라서 오늘날의 학문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 글은 학문 융합의 의미와 가능성을 후설 현상학을 통해 해명하고자 하였다. 후설 현상학의 출발점이 바로 오늘날의 학문 현실과 같이 새로운 분과학문이 등장하고 발전해 나가던 역동적인 시기였기 때문이다. 논의의 기초는 후설의 학문 이론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985)

** 이 글은 2014년 한국현상학회의 신춘현상학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논평을 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숙명여대 교양교육원 조교수

과 본질직관이다. 특히 본질직관의 의미를 정치하게 해석함으로써 후설 현상학의 학문 융합에 대해 갖고 있는 함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질직관은 대상이 대상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그에 따라 본질을 탐구하는 본질학(Eidetik) 혹은 형상적 학문은 경험과학의 융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를 통해 후설 현상학의 주요한 개념인 형상적 학문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 주제어

후설, 현상학, 학문이론, 학문 융합, 본질직관

I. 학문 융합 시대와 인문학에 대한 두 가지 요구

유럽인들에게 발견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신대륙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은 캥거루다. 같은 초식 동물이지만 이 신대륙에서 토끼는 악명이 높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토끼 사이의 전쟁은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1859년에 영국에서 이주해 온 한 귀족이 자신의 고상한 취미인 사냥을 위해 토끼 열두 쌍을 들여온 것이 그 악명 높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생태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캥거루와 달리 미지의 대륙에 들어선 토끼는 그들의 숫자를 제어해 줄 아무런 포식자를 만나지 못했고, 이내 호주의 풀밭은 토끼가 점령해 버렸다. 특히 양모 산업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결국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1950년, 오스트레일리아 토끼에게는 치명적인 점액종 바이러스를 퍼뜨렸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다. 그 첫 해에 전염병에 걸린 토끼의 치사율은 99.8%, 2년 차에도 90%를 유지했고 마침내 15년이 지났을 때, 토끼의 개체 수는 전성기에 비해 1/5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전염병 역사가로 유명한 맥닐(W. McNeil)은 전염병과 생태적 균형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토끼가 그 바이러스를 살포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 놓았다.¹⁾ 맥닐 교수는 확실히 토끼의 힘을 과소평가 했다. 채 50년이 지나지 않은 1997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다시 한 번 바이러스 살포를 결정하였다. 정부 당국과 토끼 사이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정부는 유전자 조작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에는 언제나 흥미진진한 대결이 있다. 그 대결에서는 주로 진화(evolution)와 적응(adaption)이 화두다. 이러한 이야기를

1) 윌리엄 맥닐 저, 허정 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1992. 72쪽. 이하 참조.

학문의 세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예컨대 몇몇 학문에 있어 요즘은 시련의 계절인 듯 보이기 때문이다. 또 몇몇 새롭게 시작된 학문들은 공공연히 낡은 학문을 대체할 것처럼 말하곤 한다. 19세기와 20세기 초반의 격동적인 학문사가 다시금 재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문학은 위기의 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호명될 수 있는 유력 후보다. 후설이 유럽 학문의 위기를 말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위기가 다시 부활한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 있다. 아예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며, 상시적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고 자조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마치 오스트레일리아의 토끼처럼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라는 말로 연상되는 표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품이고, 다른 하나는 융합이다. 인문학이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학 안에 있는 인문학 전공의 싸늘한 인기와 대학 담장 바깥의 뜨거운 인기라는 역설로 설명된다. 그 대학 담장 바깥의 뜨거운 인기는 대부분 지친 삶을 위로받거나 각박해진 삶의 현장에서 풍요로운 감성을 회복하고 싶은 일종의 지적 낭만주의에 가깝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인문학 고전의 향기에 취해보려는 욕망이 아름다운 오페라를 감상하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한 인문학 상품의 특징은 역설적으로 반시장주의적이라는 것이다. 인문학 소비자들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좌판으로 깔아 놓은 치열한 경쟁의 삶에 대한 거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설적인 모습은 융합(convergence)²⁾이라는 키워드에도 숨어

2) 학문 간의 융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본래 융합의 의미는 화학적이다. 화학적 융합은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융합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남인의 경우는 다양한 학제적 연구의 한 형태를 융합으로 본다.(이에 대해서는 이남인,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통섭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토대

있다. 20세기 들어 인문학의 역할 중 하나는 끝을 알 수 없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일종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하이데거(M. Heidegger)가 그랬고, 요나스(H. Jonas)가 그랬다.

수백 년 동안의 베이컨적이고 프로메테우스적인 열광이 (마르크스주의를 탄생시킨 열정) 지나간 오늘날 이제 앞을 향한 질주의 고삐를 잡고자 하는 책임의 윤리를 정초하려는 것이다. 이 윤리를 정초하지 않고 내버려 두어 조금 후 자연이 엄청나게 가혹한 방식으로 이 기술 문명의 질주를 멈추게 한다면, 이것은 더 이상 후손에 대한 소박한 예의와 결합되어 있는 현명한 대책은 아닐 것이다.³⁾

요나스의 열정은 기술의 본질이 변화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칫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경고이자, 기술을 통해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충고의 산물일 것이다. 이러한 반기술문명적 인문학은 첨단 기술에 대한 건전한 비판자로서 기능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은 첨단 기술 융합이 만들어낸 최첨단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감성적 디자인으로 무장하

로 삼아», 『철학연구』, 87권, 2009. 참조.) 이 경우에도 융합은 기존 학문들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의 산출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체성을 파괴한다는 의미에서 융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다. 이종관은 융합이라는 개념이 가진 모종의 폭력성을 고발하면서 ‘융화(Harmonizing)’이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이에 대해서는 이종관, 「융합을 넘어서 융화를 향해—협력적 창의성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융화지향 과학 기술 비전」, 『인문과학연구』 51권,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원, 2013. 참조.) 융합 개념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그리고 이 글에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개념으로서 융합은 융합의 본래 의미를 살려 기존의 정체성을 허물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복수의 학문 분과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존의 대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루거나, 새로운 대상에 대한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기존의 학문 분류로는 담아낼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의 연구와 연구 방법 등을 뜻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러한 융합은 기존 학문의 정체성 파괴를 의도함으로써 다양성을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탐구 대상과 영역의 증대를 통한 다양성의 증가를 의미하는 점이다.

- 3) 한스 요나스 저,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2012, 369쪽.

면서 인간의 감성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감성은 새로운 시선에서 시장의 상품이 되었다.⁴⁾ 새로운 상품의 개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생존을 위한 경쟁시대의 화두가 되었고, 인문학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첨단 산업 기술 분야에서 이른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기업에서는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든 상품이라야 비로소 팔려나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미디어 산업의 첨병인 애플(Apple)사는 비록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여러 가지 노동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⁵⁾ 적어도 대한민국의 인문학자들에게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준 기업으로 인정받아 마땅할 것이다.

한 편으로는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가진 지식 시장의 상품으로서, 다른 편으로는 첨단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나, 혹은 거꾸로 기술 발전의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인문학에 대한 서로 상이한 요구는 아마도 이렇게 다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바깥에서 인문학은 인간 삶의 참된 행복과 관련하여 마치 지난 세기의 60년대처럼 반기술문명적 거리두기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가지만, 이미 기성의 시장주의적 사회제도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대학은 인문학의 다양한 상품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중 하나는 첨단 기술문명의 상품 개발에서 인문학의 역할을 찾아냄으로써 인문학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최근 회자되고 있는 융합 패러다임 속

4)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는 바로 디자인과 광고 시장이다. 첨단 기술의 지향점이 인간이라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리모콘만 들면 된다. ‘휴먼 테크’라는 말은 보통명사가 되었다.

5) 애플의 OEM 생산공장이기도 한 중국의 팍스콘이나 페가트론 공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다. 최근 문제가 된 페가트론사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사 참조.

이종혁, “애플 중국 하청업체 15세 직원 사망”, <서울경제>, 2013년 12월 12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decono/201312/e2013121217331069760.htm>).

에서 정위된 인문학의 처지이다. 그런데 인문학은 이렇게 상반되게 느껴지는 두 요구를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앞서 언급했던 진화와 적응의 개념을 확장시킨다면, 다시 말해 그 개념에 덧씌워진 생물학적 흔적들을 지워버리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변화와 학문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생각할 때, 인문학을 새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은 불가피하거나 혹은 마땅한 일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위기는 늘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II. 위기의 변주와 낡은 문제의 새로움

1. 위기 양상의 변화와 오래된 문제

인문학자들 스스로에게도 불명료한 이중적 가늠자와 기묘한 불일치가 그리 낯선 것만은 아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의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사이의 대립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계몽주의자들이 꿈꾼 유토피아는 사회적 관리 기술의 혁신을 통해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세계였던 반면, 낭만주의자들은 조직화된 합리성으로 인간 삶을 짓누르는 사회 관리 기술은 반자연적이며, 동시에 반인간적이라고 맞섰다. 이러한 대립의 최근 버전은 첨단 기술과 유전공학의 힘으로 증강(augmented)된 인간을 꿈꾸는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과 ‘느리게 살기’와 같은 대안 운동(alternative movement) 사이의 대립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의아함을 갖고 있는 문제는 내용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오래된, 그래서 낡은 문제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용의 새로움은 아마도 위기의 변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대를 정의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 중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르네상스로부터 근대로, 근대로부터 다시

현대로, 그리고 또 다른 미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변화는 계속해서 그 시대의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라고 압박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융합’ 담론은 바로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을 지시하는 표현처럼 들린다. 실제로 오늘날 다양한 학문 간의 융합을 말할 수 있게 된 근거 중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덕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광범위한 데이터와 정보들을 언제나 활용가능 한 상태로 번역해 놓았다. 서로 이질적인 탐구 영역의 학자들이 지식을 교환하는 시간과 비용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결과 예기치 않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의 시대를 ‘새로운 르네상스’라고 부르곤 한다. 마치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근대 유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혁신적 기술이었던 것과 같다. 활판 인쇄가 시작된 이래 신성한 지식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전유물일 수 없었고, 지식의 광범위한 확산은 사회와 학문의 체계 모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⁶⁾ 디지털 기술이 초래하고 있는 변화 역시 르네상스적 변화의 변주처럼 보이는 것이다.

물론 디지털 기술이 초래한 변화의 문제점 역시 분명하다. 특히 인문학의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특정한 역사적 문맥을 가진 인문학적 지식들이 파편화함으로써 인문학적 개념이 탈가치화하는 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문화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지난 세기에 벌어진 제국주의와 계몽주의의 이상한 이데올로기적 조합에 대한 저항선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취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번역된 인문학적 개념들은 그 본래의 뿌리를 잃어버리는 대신 높은 가소성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느 영역의 지식과도 결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상

6) 이러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D. Robertson, *The New Renaissance-computers and the next level of civilization*, N. Y.: Oxford, 1998. 참조. 그리고 마샬 맥루한 저,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1. 참조.

황을 달리 말하면, 전통 학문들의 변화, 혹은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통 학문들이 부딪쳐야 하는 커다란 변화가 임박해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도 위기이다.

상황은 후설 현상학을 소환하기에 무르익은 듯 보인다. 그는 평생을 위기와 대결했다. 수학의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년에 유럽 문화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후설 현상학은 학문의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들 중 하나를 관통했다. 비록 위기의 내용과 방식이 변주되기는 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후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한 대자뷰를 경험한다. 새로운 기술과 탐구 방법의 등장으로 전통 학문의 경계가 변화하고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대 학문이 18~19세기 동안 끊임없이 분화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갔다면, 최근에는 의공학(medical engineering)이니, 신경윤리학(neuroethics), 생명지구물리학(Biogeophysics)과 같은 새로운 학문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의식과 관련해서도 뇌과학과 신경생리학의 발전은 한때 후설의 명예를 드높였던 싸움을 새로운 국면으로 가져가고 있다.

선형적(transzendente) 현상학에 대한 체계적인 입문서로 기획되어 1913년에 첫 모습을 보인 『순수 현상학과 현상학적 철학의 이념들』시리즈 1권의 시작은 사실(Tatsachen)과 본질(Wesen)에 관한 구별에 할애되어 있다. 학문체계 일반을 다시 설계해 보려는 야심찬 기획의 첫 머리라는 가장 중요한 장을 사실과 본질을 구별하는 일에 할애한 까닭은 후설에게 그 구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후설은 그 구별을 통해 개별 학문들을 일반적인 관점에서 분류하고자 시도한다. 그는 본질과 사실을 구별하듯 형상적 학문(eidetische Wissenschaft)과 경험적 학문(empirische Wissenschaft)을 구별하고, 형상적 학문을 다시 형식적(formale) 학문과 실질적(materiale) 내용을 가진 학문으로 구별한다.⁷⁾ 이러한 구별로 후설이 의도한 것은 분명하다.

“이상적인 것은 아마도 이렇 것이다: (철학의 근본 개념의 혁신을 조건으로 하여) 세계에 관한 보편학이 현실의 구체적인 세계와 일관된 세계 구체적인 개별학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⁸⁾

학문을 분류하는 문제는 사실 후설만의 고유한 문제의식은 아니다. 신칸트학파의 작업은 물론이고, 유럽의 담론으로부터 비껴 서 있었던 퍼스(Ch. Pierce) 역시 학문을 분류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디드로(D. Diderot)를 위시한 계몽주의 시대의 철학자들, 또 근대학문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베이컨(F. Bacon)에 이르기까지 근대 철학의 역사는 학문 분류의 역사로 다시 서술해도 될 것이다.⁹⁾ 지식의 종류와 그에 따른 학문의 분류에 대한 요구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탐구 분야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인간 지성에게 던져진 당연한 요구인지도 모른다. 19세기 수학의 위기는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집합론처럼 새로운 탐구 영역의 등장으로 촉발되었으며, 뉴턴과 아인슈타인 그리고 양자역학으로 대변되는 고전물리학과 현대물리학 사이의 스캔들 역시 미시 세계라는 새로운 탐구 영역이 등장하면서 비롯된 것이었다.

새로운 탐구 영역의 등장은 기존 학문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낳았고, 이것이 말하자면 위기를 불러 온다. 이 위기에 대처하는 철학적(인식론적) 방법이 지식과 그런 지식들의 체계인 학문을 다시금 분

7) E. Husserl, *Ideen zu einer reinen Phaenomenologie und phaenomenologische Philosophie. Erstes Buch*,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6, Husserliana Bd. III.1(이하 Hua III.1) §§7~8.

8)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rgänzungsband*.(Texte aus dem Nachlass 1934~1937), The Hagu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이하 Hua XXIX). p.147.

9) 이는 한 편으로 근대가 학문사적으로 얼마나 격동적인 시기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학문 분류의 문제와 후설 현상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논의는 박승익, 「학문 분류의 문제와 후설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54집, 2012 참조.

류하는 일이었다. 후설이 그의 현상학을 체계화하면서 이런 분류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은 그런 점에서 당연한 일이었다. 후설에 따르면 모든 경험과학은 자신의 이론적 토대를 형상적 학문에 의지한다.¹⁰⁾ 단적인 예는 실험 물리학과 이론 물리학 사이의 관계이다. 실험 물리학은 이론 물리학의 다양한 예측과 가설을 확증하거나 반증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험 물리학의 이론적 근거는 잘 확립된 이론 물리학에 의지해 있다. 이른바 본질학문들이 경험과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것이다.

얼핏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정초관계(*Begründungsverhältnis*)와 관련하여 학문 간 결합, 혹은 융합이 새로운 탐구 영역을 발견해 내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예컨대 새로운 탐구 영역이 발견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풀어줄 알고리즘이 생겨나고 마침내 과학자 사회에서 공인된 학문 영역으로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해보자. 새로운 탐구 영역은 이제까지 다루어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일 수도 있고, 이제까지는 이리저리한 학문들과 연관을 맺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 이 새로운 학문은 후설의 구분에 따라 경험과학일 수도 있고, 형상적 학문일 수도 있다. 만약 이 새로운 학문이 경험과학이라면 아주 흥미로운 경우의 수가 생겨난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뇌과학(Brain-science)’은 인간의 의식에 대한 새로운 설명모형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뇌과학은 전통적으로 심리학이 탐구해 오던 영역을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뇌과학이 앞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어쩌면 우리는 과거 연금술(Alchemy)이 받아들여야 했던 운명을 심리학에서 다시 발견할지도 모른다. 심리학의 운명과 관련해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심리학과 뇌과학이 이론적으로 양립 가능한 상태로 공존한다.
- ② 뇌과학이 심리학으로 흡수된다.

10) Hua III.1. p.23 참조.

- ③ 심리학이 뇌과학으로 흡수된다.
- ④ 심리학과 뇌과학이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학문 안에 포섭된다.

첫 두 경우라면 심리학은 지난 200여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지만, 다른 두 경우라면 과학사의 한 장을 차지하며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어떤 경우든 분명한 사실은 두 학문 간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은 모든 경험과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경험과학의 탐구 표적인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실체라는 점에서 보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물론 세계 자체는 변화하지 않고, 우리의 개념틀만이 변화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경험과학의 경계가 변하는 현상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최신의 이론은 아니지만 후설의 현상학은 학문간 융합, 혹은 학문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대하여 매우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대상적 가능성의 한계로서의 본질과 융합 가능성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

무엇보다 후설은 앞서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¹¹⁾ 이론적 일관성과 우아함을 위해 실제 세계를 희생시키는 극단적인 관념론자가 아니다. 학문을 분류하는 일은 현실의 세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에서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대상 세계에 대한 더 좋은 탐구 방법이 발견되고, 더욱 명증한 지식을 얻는 일이 가능하다면, 오늘날 회자되는 융합이나 새로운 학문 분과의 등장은 후설 현상학의 시선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

11) 한 편으로 “이상적인 것은 아마도 이럴 것이다: (철학의 근본 개념의 혁신을 조건으로 하여) 세계에 관한 보편학이 현실의 구체적인 세계와 일관되게 구체적인 개별학문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Hua XXIX, p.147

니, 오히려 그가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의 말미에서 제기한 목적론적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학문 간의 경계가 유동하는 현상은 고무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점점 더 세계의 진실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문제의 시선을 그렇게 경계가 유동하고 있는 경험과학들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형상적 학문들로 돌려보자. 경험과학의 경계가 유동하는 것처럼, 형상적 학문들의 경계도 변화할 수 있을까? 이는 (유감스럽게도) 경험과학의 경우처럼 그리 간단하게 생각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형상적 학문들의 경계가 변한다는 것은 그 경계를 지정하는 형상, 즉 본질 개념에 변화가 생긴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후설이 사실과 본질의 구별을 통해 독자들에게 분명히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은 본질이 필연성(Wesensnotwendigkeit)의 근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에서 ‘본질’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부터 구별시켜 주는 분류학적(taxonomic) 근거인 동시에 우연적인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써 불변적 존재 근거로 간주되는 대상이다. 그런데 형상적 학문의 경계가 변한다면, 개별 경험과학이 그 이론적 근거로 의지하던 형상적 학문의 본질 필연성에 균열이 생긴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후설의 분류 방식에 따라 영역 존재론(regionale Ontologie)의 위계는 대상 영역 간의 이론적 정초관계를 보여준다. 경험과학들, 예를 들어 실험물리학이나 화학에 대응하는 형상적 분과는 이론물리학 혹은 좀 더 분명하게는 수학적 분과들이다.¹²⁾ 경

12) 이론 물리학을 형상적 분과로 간주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론 물리학 역시 우리의 경험 세계를 다루는 한 경험과학으로 보아야 하고, 그런 한에서 형상적 분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물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경험과학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최근의 이론 물리학은 단순히 경험과학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학적이다. 예컨대 초끈 개념을 토대로 11차원을 다루는 M이론과 같은 경우는 경험과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후설이 『이념들 I』에서 묘사한 대로의 구별이라면, 최근의 이론

험심리학에 대응하는 형상적 분과는 순수 심리학, 혹은 현상학적 심리학이다. 그런데 수학적 분과와 순수 심리학 분과 사이에는 순수성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차이가 있다. 수학적 대상이나 순수 의식의 존재와 관련한 복잡한 논의는 피한다 하더라도 수학적 학문이 형식적인데 반해 순수 의식에 관한 학문은 형식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¹³⁾ 결국 후설은 이론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수학적 분과들이 경험과학들에 대해 이론적 근거가 되어줄 수 있는 까닭은 수학적 분과들이 다루는 대상이 형식적이고, 따라서 아주 느슨한 의미로 말하자면 형식논리학적 필연성을 담보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⁴⁾ 그런데 순수 심리학이 경험 심리학에 대해 갖는 관계가 수학이 물리학에 대해 갖는 관계와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두 분과 사이의 이론적 관계는 수학과 물리학 사이의 이론적 관계와 같아야 한다. 결국 후설은 수학적 대상들과는 다른 의미에서 형상, 혹은 본질의 필연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철학적 상식에 비추어볼 때 경험적 대상들은 시간적 변화에 굴복한다 하더라도, 본질들은 시간의 변화와는 무관해야만 한다. 철학적 상식에 의지해 있는 우리는 직관적으로 후설이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예감할 수 있다. 그 곤란한 처지를 도식화하면 이렇다.

물리학은 오히려 형상적 분과에 가깝다고 보아야 한다. 후설은 근대 물리학의 발전을 설명하면서 물리학이 정확한 법칙적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기하학의 발전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기하학이 말하자면 자연에 관한 형상적 분과일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Hua III.1 24쪽. 참조.)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면 최근의 이론 물리학 중 상당수는 오히려 형상적 분과로 보아야 옳다. 적어도 기하학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공간들에 대한 해명이라면, 최근의 이론 물리학 역시 우주의 논리적 가능성들에 대한 해명에 가깝기 때문이다.

- 13) 후설은 이를 수학적 개념은 언제나 잘 정의된, 그래서 닫힌 개념인데 반해, 의식에 관한 개념들은 닫힌 개념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14) 수학과 논리학을 하나의 동일한 분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여기서는 수학적 지식의 필연성이 논리적 필연성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는 점만 주목하기로 한다.

- 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 ② 경험세계를 탐구하는 경험과학의 정체성은 변화할 수 있다.
- ③ 경험과학의 이론적 근거는 형상적 학문에 있다.
- ④ 형상적 학문이 경험과학의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학문이 필연성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 ⑤ ③과 ④를 고려할 때, 경험과학과 형상적 학문 사이에는 평행관계가 성립한다.¹⁶⁾
- ⑥ 형상적 학문이 그 지식의 필연성을 보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상적 학문이 탐구 대상으로 삼는 본질들의 ‘세계’는 불변이어야 한다.
- ⑦ ②, ⑤와 ⑥에 따라 경험과학과 형상적 학문 사이에는 대칭성(symmetry)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⑧ ⑥을 고려하고, 본질이 그저 형식적인 개념이 아닌 한, 본질들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는 무관한 ‘또 다른’ 세계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비록 이러한 의심이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후설은 그런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날 탈출구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그는 우리와 같은 탈형이상학적 분위기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배려하기라도 하듯이 이른바 플라톤적 이데아의 세계라는 형상들의 초월적 실체성(Hypostasierung)을 인정하지 않고자 한다.¹⁷⁾ 대상으로서의 본질을 인식 주관에 대해 독립적인 실체로

15) 후설에 있어서 이 필연성 개념은 별도의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명증성(Evidenz) 개념과 관련하여, 필증성이 뜻하는 필연성과 완전한 증전적 명증성에 의한 필연성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이 만약 수학이 개별 경험과학들에 이론적으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일까? 우리가 보편타당하다고 간주하는 물리학의 법칙들 역시 필연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후설이 초기에 학문 일반에 대해 연역법칙적 모델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칙의 필연성을 확보하는 일은 그의 학문이론에서 중요한 문제였을 것이며, 그 때문에 그가 본질직관을 현상학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겼을 것이다.

16) 우리는 이를 후설이 즐겨 쓰는 표현을 인용하여 ‘현상학적 평행론(phaenomenologische Parallellismus)’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17) E. Husserl, *Logische Untersuchungen. Zweiter Band. Erster Tei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84 (이하 Hua XIX/1), p.127 이하 참조. 물론 그

간주할 경우 우리가 대상 세계에 대해 보편타당한 지식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기는 용이하나, 인식 주관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는 대상에 대해 알게 되는 현상은 인식론적으로 하나의 수수께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가 초기에 볼차노(B. Bolzano)의 논리주의에 동조하지 않고 본질을 새로운 종류의 대상들로 삼았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문제 상황에 대한 후설의 해법은 이렇다. 돌과구는 ⑥에서 드러나는 철학적 상식을 재검토 하는 것에서 찾아진다. 그가 본질의 형이상학적 실체화를 거부하면서도 경험과학의 정체성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형상적 학문의 가능성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본질들의 세계는 ‘변치 않는 실체들의 세계’가 아니라 한 대상이 경험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지정하는 집합적 조건들의 집합이어야 한다. 즉, ‘본질’은 한 대상의 변화 가능성 전체이다.¹⁸⁾ 이를 후설의 표현방식으로 빌면 다음과 같이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개개의 존재자는 실제적이고 가능한 경험적 소여방식의 이념적 일반성을 간접적으로 지시한다. 그 소여방식 각각의 현상은 이 하나의 존재자로부터, 더욱이 모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이 하나의 일관된, 그리고 연속적으로 경험하는 지향을 충족시키는 소여방식의 과정이 이러한 전체 다양체로부터 실현되는 방식으로부터 나온다.¹⁹⁾

본질 개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경험적 대상의 현실적 우

반대의 경우, 즉 단순한 심리적 구성물로 해명하려는 유명론적 견해 역시 후설은 거부한다.

18) 후설이 본질 개념을 이렇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E. Husserl, *Aufsätze und Vorträge(1911~1921)*.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87 (Hua XXV). p.91, p.146, 그리고 *Erfahrung und Urteil*(hrsg. L. Landgrebe, 1974) Hamburg: F. Meiner, §87 참조.

19) E. Husserl,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The Haag: Martinus Nijhoff, 1962 (Hua VI). p.169.

연성은 본질의 한계 내에서 일어나는 ‘개별’ 사건들일 뿐이다. 즉 형상적 학문이 ‘본질 대상’들에 대한 탐구라고 할 때, 경험 대상의 가능한 변화 전체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후설의 이른바 ‘형상적 학문’은 경험과학들의 융합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서로 다른 두 학문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융합 연구 영역을 찾아내고, 이로부터 새로운 학문이 성장한다고 가정해보자. 그 경우 새로운 연구 영역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 대상의 본질가능성에 이미 내재해 있던 가능성들이 발현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의식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도 의식이 비록 비물질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물질적인 토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받아들이면 의식에 대한 탐구는 비물질적이어서야 한다고 제약을 걸 이유는 없다. 의식의 본질 가능성에 자신의 존재 토대로 물리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뇌에 관한 신경 생리학적 연구나 혹은 인공 신경을 통해 뇌의 작용을 시뮬레이션 해 보는 탐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바꾸어 말해 어떤 대상의 본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한, 탐구 영역의 확장과 변화는 우리가 그 대상의 본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발견해 내느냐에 달린 것인지도 모른다.

인식 주관과 대상 사이의 지향적 상관관계를 제1의 원리로 받아들이는 한, 대상의 변화 가능성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전략은 인식 주관과 대상 양쪽의 제약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심리학적 의미에서의 수수께끼로부터도 또 초월적 존재자라는 형이상학적 부담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인식 주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후설이 보기에 수학적 인식 주관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단적인 증거이다. 수학적 대상을 구성하는 작용이 바로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경험적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미리 못 박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적어도 그 경험적 대상이 우리의 인식 체계 안에서 의미론적으로 구성(Konstitution)되는 것인 한, 그 대상이 탐구 대

상으로서 주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를 생각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대상의 등장으로 촉발되는 학문의 역동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학문의 위기와 기회는 후설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반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사이 지나간 시간이 변주해 놓은 위기의 양상처럼 그 해법 역시 여러 가지 변주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후설의 현상학도 마찬가지다.

Ⅲ. 학문 융합의 시대와 현상학의 새로운 역할

형상적 학문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구심을 벗는 방식은 학문 융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함축을 내 놓는다. 낙관적으로만 보면, 학문 융합은 세계에 관한 우리 지식의 양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물론 특정 학문의 전통적인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이기만 할 수는 없다. 나중에 오는 것이 앞선 것보다 좋은 것, 혹은 옳은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소박할지 모른다. 문제는 그런 변화를 냉정하게 가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다. 후설 현상학은 그런 점에서 학문간 융합을 이론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들 중 경쟁력 있는 후보이다.

본질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서 탐구할 수 있는 탐구 영역의 한계를 탐색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작업은 사후적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미리 가늠해 보는 일도 가능하다. 새로운 기술이 어떤 대상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고, 그에 따라 새로운 문제 영역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학문 분과가 생겨난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그 대상의 본질 한계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확실히 사후적인 작업이다. 예를 들어 신경윤리학을 생각해보자. 특정한 기술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뇌신경 상태를 바꾸고 그에 따라 환자의 심리

적 질환을 치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의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본질에 대한 탐구가 이미 완성된 것이어서 어떤 변화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일 뿐이다. 본질의 한계와 본질 인식의 한계가 동일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독단적인 관념론에 가깝다. 수학적 대상이 우리의 의식에 의해 구성된 것임에도 늘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다는 것이 본질 인식의 한계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본질 자체의 한계와 본질 탐구의 한계를 이원화하면 이제까지의 탐구를 통해 앞으로 어떤 가능성들이 새롭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식적인 의미에서 윤리학은 규범과 당위에 관한 학문이다. 따라서 그것이 오직 인간의 행위에만 적용되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어떤 사회적 체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모든 대상은 윤리적 문제의식 속에서 고찰될 수 있다. 로봇이나 특정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단순히 인간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체계를 작동하게 하는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 윤리적 탐구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모색해 보는 것은 윤리와 가치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통해 앞으로 가능할 수 있는 탐구의 분과를 미리 예견해 보는 일이 될 것이다.

학문의 변화를 분석하고 기술적인(descriptive) 관점에서 예측해 볼 수 있는 논의 프레임을 갖는 것은 중간에 늘어서 있는 가능성들을 모두 소거해 버린 채 극단으로 치닫는 위험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지지대 구실을 할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기술 문명을 비판하는 태도나 그 반대로 새로운 발견의 힘에 취해서 사태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확실히 권장할 만한 태도는 아니다. 어떤 선입견도 없이 사태 자체를 확정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일은 현상학적 방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후설 현상학은 오늘날의 학문들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융합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동감 있고, 의미 있는 함축을 보여준다. 이제 아

직 명료하게 해명하지 못한 문제로 되돌아가보자.

경험과학의 융합 현상에 대해서는 후설 현상학의 프레임 안에서 잘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영역들이 융합 가능하고 어떤 영역들은 융합이 어려운지를 분별해 내는데 후설 현상학이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하더라도, 형상적 학문들 자체가 융합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선명하지 않다. ‘본질’ 개념에 대한 철학적 상식으로부터 잠시 비켜서서 형상적 학문들이 대상이 대상적 의미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들에 대한 탐구라고 할 때, 형상적 학문들이 융합가능하다면, 그것은 곧 대상의 변화 가능성의 한계가 유동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예컨대 사실과 본질의 구별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후설은 ‘사물(Ding)’이라는 범주와 ‘영혼(Seele)’이라는 범주는 하나의 개체 안에서 당연히 서로 중첩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되지는 않는 분명한 경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²⁰⁾ 이를 우리의 논의와 관련해서 보자면, 경험과학들은 융합하고, 그 경계가 변할 수 있는데 반해, 순수한 형상적 학문, 혹은 본질학(Eidetik)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경험과학들은 경험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는데 반해 형상적 학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마치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피조물의 본질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대상의 변화가능성의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다. 후설이 ‘본질직관’이라는 표현을 쓴 의도는 본질이 인식 주관의 단순한 개념적 구성물이 아님을 말하고자 함이었다. 그것은 여전히 ‘주어지는(gegebensein)’ 것이다. ‘가능성의 한계’를 말하는 본질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본질학은 선형적(transzendente) 성격을 갖는다. 적어도 이러한 의미에

20) Hua III.1. p.38 참조.

서 본질학은 여전히 구체적인 탐구를 필요로 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한계를 아는 것과 그 구석구석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질직관이 자유로운 변경(Variation)을 통해 한 대상이 가질 수 있는 대상적 의미의 한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그 대상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의미를 일거에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러한 우회로에도 불구하고 형상적 학문의 경계가 변하는 일, 혹은 융합 가능성의 문제는 여전히 유예되어 있다.

이러한 유예는 유감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만약 형상적 학문 혹은 본질학의 경계가 변화한다면, 그것은 곧 인간의 선험적 조건이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선험적 조건의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심급은 유예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선험적 조건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은 순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험과학이나 상식으로 선험적 조건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는 없다. 선험적 조건이 경험과학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 역의 관계가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험적 조건의 변화에 대한 최종적인 심급은 선험철학의 자기완결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끝없이 유예되어야만 하는지도 모른다.(이는 인간의 학문이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게 하는 조건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런 궁극적인 문제로 비약하기 이전에 순수한 형상적 학문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또 어떤 학문들이 그런 형상적 학문(Eidetik)들이 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한 기술적 탐구들을 먼저 수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질학으로서의 현상학(Phaenomenologie)은 학문 융합의 시대에 새로운 의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아마도 이것이 말년의 후설이 우리에게 열어 준 문제 영역일 것이다.

• 참고문헌

박승억, 「학문 분류의 문제와 후설 현상학」, 『철학과 현상학 연구』 54집, 2012.

이남인,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통섭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삼아」, 『철학연구』, 87권, 2009.

이종관, 「융합을 넘어서 융화를 향해-협력적 창의성에 기반한 사회문화적 융화지향 과학 기술비전」, 『인문과학』 51권, 성균관대인문과학연구원, 2013.

한스 요나스 저, 이진우 역,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서광사, 2012

마셜 맥루한 저, 임상원 역, 『구텐베르크 은하계』,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1

윌리엄 맥닐 저, 허정 역,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 한울, 1992

Robertson, D., *The New Renaissance-computers and the next level of civilization*, N. Y.: Oxford, 1998

Husserl, E., *Ideen zu einer reinen Phaenomenologie und phaenomenologischen Philosophie. Erstes Buch*,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6 (Husserliana Bd. III.1)

_____, Husserl, E., *Die Krisis der europa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aenomenologie*, The Haag: Martinus Nijhoff, 1962 (Hua VI)

_____, *Logische Untersuchungen. Zwitter Band. Erster Teil*,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84 (Hua XIX/1)

_____, *Aufsaeztes und Vortraege(1911~1921)*.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87(Hua XXV)

_____, *Die Krisis der europäischen Wissenschaften und die transzendente Phänomenologie. Ergänzungsband.*(Texte aus dem Nachlass 1934~1937), The Hague, Netherlands: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2 (Hua XXIX)

_____, *Erfahrung und Urteil*, (hrsg. L. Landgrebe) Hamburg: F. Meiner, 1974

이종혁, “애플 중국 하청업체 15세 직원 사망”, <서울경제>, 2013년 12월 12일,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decono/201312/e2013121217331069760.htm>).

Husserl's Phenomenology and the Convergence of Sciences

Park, Seung Ug*

Recently, the concept of convergence has been a hot issue in the academic community. It was sometimes called a new paradigm of scientific research. This means our sciences (Wissenschaften) face big changes. These changes reflect a crisis of traditional sciences and, at the same time, a chance for new areas of science. In this paper, I have tried to explicate the meaning and the possibility of the convergence of sciences from the perspective of Husserl's phenomenology. Husserl, just like us, lived in the era of big changes of science, and wanted to give a foundation for the system of science through his project of phenomenology. According to his phenomenological project, the convergence of sciences is both possible and meaningful. I have tried to show how it is possible and to suggest a new implication of Husserl's phenomenology in the era of convergence.

Main scope: Phenomenology, philosophy of science

Key words: Husserl, phenomenology, convergence, eidetic-seeing

필자 E-Mail: seungug@sm.ac.kr

투고일: 2015년 3월 30일 / 심사완료일: 2015년 4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7일

*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